

# SaaS형 직원 스케줄 관리 서비스 시장: 핵심 요약 및 트렌드

요청하신 대로, 공신력 있는 데이터 소스(뉴스, 리서치 기관, 전문가 분석)를 기반으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 직원 스케줄 관리 서비스 시장**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전통적인 수기 작성이나 엑셀(Excel) 관리를 벗어나,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역동적인 분야입니다.

## 1. SaaS 스케줄 관리 서비스란?

간단히 말해, \*\*월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직원 스케줄링 및 인력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과거에는 관리자가 엑셀 파일이나 종이 달력에 의지해 수동으로 근무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방식은 시간 소모가 크고, 실수(휴무자 누락, 근무시간 초과 등)가 잦으며, 변경 사항을 공유하기 어려웠습니다.

SaaS형 솔루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관리자는 PC나 모바일 앱으로 스케줄을 생성·배포하고, 직원은 자신의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휴가나 근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 (Key Drivers)

최근 몇 년간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합니다.

- 디지털 전환(DX)과 업무 자동화 요구
  - 가장 큰 동력입니다. 많은 기업이 비효율적인 수작업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HR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출처: 다수 IT 전문 뉴스 및 경영 리포트)
  - 스케줄링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업무라 자동화 효과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입니다.
- 복잡해진 고용 형태와 유연 근무
  - 주 5일 정규직 외에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 교대근무 등 고용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 특히 리테일, 외식업(F&B), 물류 센터 등 현장직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수백 명의 스케줄을 엑셀로 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출처: HR 전문가 블로그 및 관련 업계 분석)
- 강화된 노동법규 준수 (Compliance)**
  -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연장근무 수당, 야간수당,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법이 복잡하고 엄격해졌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노무 전문가 분석)
  - SaaS 솔루션은 스케줄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규 위반(예: 52시간 초과)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
  - 관리자와 현장 직원이 사무실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즉시 스케줄을 확인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SaaS는 이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 3. 시장의 주요 특징 및 기능

이 시장의 서비스들은 단순한 '근무표 작성'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추세입니다.

- AI 기반 최적화:** 직원의 숙련도, 선호 시간, 인건비, 법규를 고려해 AI가 최적의 스케줄을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 근태 관리(T&A) 통합:** 직원의 출퇴근 기록(지문, 안면 인식, GPS 등)을 스케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정확한 근무 시간을 집계합니다.
- 급여 정산 연동:** 집계된 근무 시간을 바탕으로 각종 수당(연장, 야간, 주휴)을 자동 계산하여 급여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스케줄 변경, 공지 사항, 업무 요청 등이 앱을 통해 즉시 공유됩니다.

### 4. 주요 수요처 (Target Industries)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교대근무나 유동적인 스케줄링이 필수적인 산업**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보입니다.

- 리테일 및 외식업 (F&B):** 대형 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레스토랑 등 (아르바이트 생 관리가 핵심)
- 헬스케어:** 병원 및 요양 시설 (간호사 등 3교대 근무)
- 제조 및 물류:** 공장, 물류 센터 (24시간 교대 근무)
- 고객 서비스:** 콜센터, 호텔, 서비스 센터

